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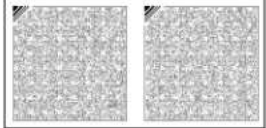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새 보 란

Saeboram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6년 6월 276호

(02) 796-4280 www.kapppd.or.kr

3 뉴스

중증장애인 고용증대 모색



12 특집

전국장애인배우자대회
현장스케치



17 편의증진

편의센터 권역별 임직원 보수교육



21 시선8616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
"지장협은 장애인 운동의 선구자"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성료

정용진 씨 외 14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 수상



2016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수상자와 주요 내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모범 장애인 부부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장협은 6월 3일 여의도 GLAD 호텔에서 모범 장애인 부부 48쌍을 초청해 '2016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회의 편견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랑과 믿음으로 건강한 가족을 일군 15명의 장애인 배우자가 표창장을 받았다.

대회 최고상인 '장한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정용진 씨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에서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남편의 재활을 도맡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두 자녀를 반듯하게 키우며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 온 정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정 씨는 이 자리에서 "말바닥 인생이라고 할 만큼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과 믿음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일군 남편과 두 자녀에게 고맙다"며 "지금도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여러 장애인 가족 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대진·유의섭·이지은·황이실 씨가 '아름다운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박명숙·이택정 씨가 '자립상(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영택·최지연·위화 씨는 가화상(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김영수·윤영숙·박명자·김춘란·김소은 씨는 '특별상(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여기 계신 장애인 부부 여러분은 세상에 귀감이 되는 모범 부부상

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며, 지장협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화목한 장애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겠다"고 전했다.

부대행사로는 이벤트 소품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리프로포즈 사진촬영을 진행했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유하기 위한 힐링토크쇼도 펼쳐졌다.

한편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는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병돈 상임대표,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향연 회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 박마루 서울시의원과 지장협 17개 시·도협회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12면에 계속>

지장협-탐앤탐스 업무협약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지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탐앤탐스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와 탐앤탐스(대표이사 김도균)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스포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장협과 탐앤탐스는 6월 8일 대명리조트 양평에서 체결한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직종 체험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직업 지원 기관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근로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스포츠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단순한 일회성 기부가 아닌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탐앤탐스의 적극적인 사회공헌에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 창출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에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이사는 "지장협과 상호 협력해 장애인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실시

10개 지자체, 4000명 대상 시범사업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6월 1일부터 6개월간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서울 구로구, 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 4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의 적합성 검증 및 합리적 판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전달

개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가칭 행복이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현재 (AS-IS)

- 의학적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 서비스 제공
- 개인이 서비스별 개별 탐색
- 일률적 서비스

향후 (TO-BE)

- 욕구, 환경 등 종합판정으로 맞춤형 제공
-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다양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방안. ©보건복지부

체계 모형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120여 개에 달한다. 최근 4년간 예산이 증가(2013년 1.1조 → 2016년 1.9조)했지만 장애인의 복지 제감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애인 복지정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현재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 서비스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환경 등 장애인

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장애등급 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다 보니, 장애인의 인지적·물리적 한계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등급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65.4%에 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 등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지원 대신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종합판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해 야간순회, 응급안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등 현물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실제 욕구와 필요성을 반영해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등급 후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공급자 위주에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장애등급 후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했지만 개편 후에는 국민연금 공단의 복지코드가 장애인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들은 또 지자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지원 연계,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장애계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되면 장애인의 체감도와 효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남지장협, 장애인 합동결혼식

장애인 31쌍 백년해로 기약



합동결혼식을 올린 장애인 부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7회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5월 31일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권취) 주최로 열린 이날 합동결혼식에서는 그동안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 31쌍이 화촉을 밝히며 백년해로를 기약했다. 이 자리에는 안희정 충남도

지사와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3600여 명이 참석해 결혼을 축하했다.

합동결혼식은 신랑·신부 입장, 감사패 전달, 혼인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희정 도지사는 부부에게 일일이 꽃을 달아주고 기념촬영을 하며 축하했다.

안 지사는 "서로 힘과 용기를 북돋는 가정을 이루길 기원하

다"며,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지역 내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총 319쌍의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다.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추천

인권위, 8월 8일까지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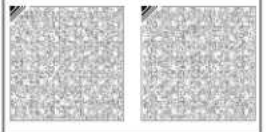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권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2016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2016년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 ▲인권교육·문화 증진 ▲인권정책·연구 분야로 나누어 오는 8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은 인권침해 구제와 차별 시정, 인권교육·문화 증진은 공공기관·기업·교육현

장·언론 등에서 인권교육과 인권문화 증진, 인권정책·연구는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 마련과 연구 활동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면 추천 대상이 된다.

인권상 후보자 추천은 홈페이지(www.nhrc.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syeop2@nhrc.go.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02-2125-9717)로 문의하면 된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연속성 모색

계량화된 평가보단 결점 보완에 집중



중증장애인의 고용증대를 위한 효율화 방안 모색 토론회 전경.

전문 인력 연속성 담보해야

지난 6월 8일,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중고연)'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은 191개소다. 수행기관 유형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이 있다.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 연구'에서 장애인이 인식하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문제점으로 개인의 특성, 장애에 대한 이해, 열악한 근로환경,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문제를 도출했다.

또 담당직원이 인식하는 문제

점은 특정 장애유형 편중, 모집 방식 문제, 낮은 고용기회 문제, 장애유형에 적합한 교육 부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중간단계 부재, 양적 실적 위주의 평가, 상대방에 의한 과도한 기관 경쟁, 직원의 업무 과중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직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의 환경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 김종인 교수는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서 전문 인력의 연속성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질적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직업재활 담당 직원을 소진시키는 요인을 밝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소진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과도한 전산 작업을 꼽았다. 실제 직업재활서비스가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전문 인력인 면대면으로 실시하는 시간이 많은 데도 사무실 전산 작업에 과도한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관 평가, 결점 보완에 초점

또 김종인 교수는 현재의 수행기관 평가 체계와 관련해서는 성과 도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관 평가는 평가 지표에 따라 점수화하고 점수에 미달하면 재평가하며, 재평가 결과 개선되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김종인 교수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평가지표를 통해 계량화하고, 점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당락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시대의 패러다임에 적절하지 않다"며 "수량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세부적인 결함을 찾아내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고용 향상을 위한 평가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컨설팅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경험이 많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상훈 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직업재활 전문 인력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가 상이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며 "이는 타 직종

으로 이직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직업재활 활성화 법에 근간한 각종 수당 지급을 통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모델 전환 촉구

한편 김종인 교수는 중증장애인 컨트롤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제안했다. 비즈니스 모델은 선진복지국가에서 새로이 각광받고 있다. 이 모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가 사업 직종이자 비즈니스 대상이며 산업이 되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고용처로 각광 받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다.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장애가 사업의 원천이며 재화가 되고 상품의 질을 담보해 주는 요소가 된다. 미국의 대표적 장애인 기업인 Good Will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램플로이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한 후 장애인 1만 여 명을 고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장애인 관련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김종인 교수는 "장애비즈니스 모델 구축은 중증장애인을 시혜적 복지 대상자에서 경제사회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건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컨트롤 모델 전환을 촉구했다.

중고연은 연속 시리즈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2차 정책토론회는 장애인단체, 복지관 등으로 확대해 '중증장애인 고용전략'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지장협,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3개 권역, 10회에 걸쳐 인권위원 교육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 하에 '지역사회의 장애인 친화적 기반조성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대상자는 2015년도 권역별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료한 전국의 인권위원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

지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3개 권역으로 나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교육을 시행한다. 지장협은 각 지역의 인권위원들이 이번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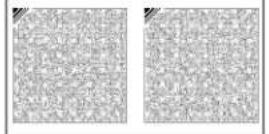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장애인 인권 전문가로서의 사명감 고취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 기초과정, 심화과정, 실습으로 구성했다. 기초과정에서는 자신감 향상을 위한 교육부터 자신이 생각하는 장애와 장애인, 사회 및 대중이 바라보는 장애와 장애인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장애인식개

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심화과정에서는 장애의 이해, 장애인과 인권, 지역사회 이해, 장애인 당사자가 바라보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주제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 강사를 양성해 장애인 인권 향상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한국농아인협회 70주년 기념대회

미래를 향한 재도약 다짐

한국농아인협회(회장 이대섭) 창립 70주년 기념대회가 6월 2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됐다.

‘70년의 저력으로 미래를 향한 재도약!’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세계농인연맹 임직원, 한국농아인협회 임직원 및 회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70주년을 축하했다.

기념식은 한국농아인협회 70주년 역사 상영과 공로자 포상, 홍보대사 위촉식, 장학증서 수여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의 농아인



한국농아인협회 70주년 기념대회 전경.

상은 한국농아인협회 부산협회 윤연식 초대회장이 수상했다. 윤

연식 초대회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농아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념식에서 이대섭 회장은 “수화언어법 제정으로 수화가 언어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농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이 함께 수화를 배울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우리가 수화 보급과 수화 교육을 강화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3일에는 해외농인초청 주제강연과 유명 농인과 함께하는 토크쇼를 비롯해 한국농아인협회 10년의 진단과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 등이 진행된다.

4일 폐회식에서는 농인을 대표하는 선언문을 발표했고 로고 및 수화사진 공모전 시상, 수화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국내 기술 ‘점자정보단말기’ 출시

장애인공단, 네오브레일 개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은 보조공학기기 개발사업을 통해 점자정보단말기 ‘네오브레일’을 개발했다.

100% 국내 기술로 제작한 점자정보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정보통신기이다. 네

오브레일은 점자입력 키보드, 점자디스플레이, 스피커 등이 장착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문서작성,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다.

네오브레일은 지난 3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장애인 IT산업박람회(CSUN)에 출품돼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 업체로부터 계약 제안을 받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박승규 이사장은 “점자정보단말기는 그동안 핵심부품인 점자 디스플레이를 수입해 제작했지



점자정보단말기 네오브레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만 공단의 보조공학기기 개발사업으로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국내 보조공학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점자정보단말기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들은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420공투단 이도건 집행위원장이 이룸센터 유리창에 난입 시도를 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농성

경기420공투단, 경기도 약속 이행 촉구

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펴낸 ‘2015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경기도 인구 1235만여 명 중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는 292만여 명에 이른다. 서울처럼 지하철 노선이 촘촘하지 않은 경기도의 환경상 교통약자들은 저상 버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기도에 보급된 저상 버스 도입률은 13.1%에 그치

고 있다. 서울의 도입률(35.5%)에는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전국 평균(19.9%)에도 못 미친다. 경기420공투쟁단은 경기도가 통상적으로 9~11년마다 교체하는 도내 버스 교체기 때 일반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앞으로 10년 안팎에 걸쳐 저상 버스 도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한 달 동안 경기도청 점거농성, 광역버스 점거 및

수원역 육교 고공농성을 진행했고, 6월 7일부터는 경기420공투단의 이도건 공동집행위원장이 단식 투쟁을 벌였다. 이에 경기도 측은 19일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충,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건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확대 등을 약속했고 경기420공투단은 단식 투쟁을 중단했다.

경기420공투단은 이도건 공동집행위원장의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경기도와 2차 TF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투쟁이 진행됐다.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경기420공투단)은 지난 5월 장애인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경기도청사 예산담당관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

다. 이들은 경기도 측이 지난해 10월 약속한 △교통약자 전담팀 신설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운영비 도비 지원 비율 30% 이상 증액 △2018년까지 시·군 특별교통수단 200% 이상 도입 등의 이행을 촉구하

장애인 정치세력화 전략 토론

“장애인 역량 강화 시기로 전환해야”

시대의 흐름 파악 중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장총련)는 ‘장애인 정치참여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5월 31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계 비례대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인 이상훈 변호사가 ‘장애인계 비례대표, 20대 총선에 대한 반성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20대 국회에 장애인계 비례대표가 진출하지 못한 원인을 △비례대표 수의 절대적 감소 △야당의 분당과 여당의 비례대표 쏠림 현상이 일어난 특수한 상황 △기존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박한 평가 △시대 흐름에 따른 비례대표 후보군의 변화로 꼽았다. 시대 흐름의 경우 특히 20대 총선에서는 경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경제 관련 인사가 대거 비례대표로 등장했고 장애인 등 복지 관련 인사는 전반적으로 소외됐다.



‘장애인 정치참여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정책토론회 전경.

이상훈 변호사는 “비례대표 후보군은 시대의 흐름을 탄다”며 “비정규직 등 국민의 관심을 받는 새로운 후보군이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장애인계 비례대표 의원직을 고수하려면 그만큼 장애인계 비례대표 의원의 활동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했는데 이에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장애인 정치학교 필요

이상훈 변호사는 앞으로의 방향으로 “장애인계 비례대표 의원은 장애인계의 정치세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유용한 척도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정치참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며 “비례대표 자체가 지향점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계가 비례대표에 경도될

경우, 자칫 개인의 정치세력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정치권에는 장애인계 요구 사항을 소수 의원 선임으로 갈음하는 손쉬운 명분만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총선에서 장애인계 비례대표를 외면한 정치권의 무감각을 비난해야 하지만, 이제 입법 의정활동의 성과물을 실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점검하

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향을 정교하게 설정하는 역량강화 시기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지영 사무국장은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역량 담보가 최우선의 과제”라고 밝혔다.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분석부터 정당정치 이해, 장애인 의제를 생산하는 역량 강화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치적 역량을 키울 (가칭)정치학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1대 국회의원을 꿈꾸는 후보자들이 과연 정치적 소양을 담보하고 있는지, 장애인 현안에 대한 해석과 대안 제시 능력을 갖추었는지, 장애인 투표행사에 있어 우선시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내용을 교육해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총련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장애인 정치참여 확보를 위한 출발점으로 재설정하여 이를 기점으로 효과적인 실천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장협, 장애인의회정치대학 부활 추진 모색

2017년 개강→2018년 지방선거 장애정치인 배출 목표

한국지체장애인의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1990년대 후반 운영했던 장애인의회정치대학의 2017년 재설립 추진을 계획하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애인계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가 배제되면서, 역량 있는 장애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장애인계의 움직임과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이뤄야 한다는 비전 실현을 위해 지장협은 장애인의회정치대학의 재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의회정치대학은 지난

1998년 설립해 2001년까지 4기에 걸쳐 15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이 정치입문의 꿈을 키웠고, 광역 및 기초의원 등을 배출하며 장애인 정치세력화에 기여했다. 당시 강사로는 국회의원, 대학교수 등이 참여했고 의정활동에 대한 지식과 장애인 관련 이론 등 학문적 강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론과 실제적인 사항을 포함해 장애인정치입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도했다. 이는 해외 장애인정치참여 분야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보적이며 창의적인 과정

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애인 분야의 전문적이고 의지가 강한 장애인당사자 정치인의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했고, 이를 지장협이 현실로 만들었다.

지장협은 현재 한국정치 지형과 장애인당사자의 역량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제작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법적·제도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인당사자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정치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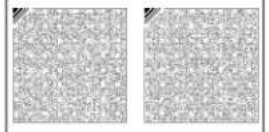


1998년 제1기 장애인의회정치대학 입학식.

전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한편 대표자로서의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향후 정치세력화는 장애인계 배출뿐만 아니라 장애인당사자의 연대, 장애인 정치 참여 의식 확대, 네트워크 구

축 등 다각적인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계획적이고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이에 장애인의회정치대학을 통해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치세력화의 체계를 만들고 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정신장애인 예비범죄자 낙인 유감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만들어야

지난 달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한국사회의 정신장애인 혐오실태를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6월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강남역 살인사건 관련 긴급 집담회-대한민국 정신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토론회를 진행했다.

5월 17일 강남역 살인사건 발생 후 가해자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조현병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가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신 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발표했다. 경찰청 측은 범죄 위협소지 정신질환자 판단 체크리스트 완성, 현장경찰관이 의뢰하면 의학자 판단을 거쳐 지자체장의 입원 요청, 당사자 퇴원 요구 시 거부 조치 적극 검토 등을 범죄 예방 대책으로 제언했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정신장애인을 예비 범죄자로 인식해 낙인 찍는 경찰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조현병 환자는 조기 진료가



‘대한민국 정신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집담회 전경.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으면 적극적으로 진단받기를 꺼려 치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정신 질환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조절되지 않는 충동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2014년 경찰통계연보에서도 정신장애 범죄자 비율은 총 범죄자 중 0.4%에 불과했다.

토론회에서 한양대 의대 신영전 교수는 “이 사건을 정신장애인의 병적 사건으로 정의한다면 그가 사람을 죽인 이유로 들었던 ‘여성혐오’는 ‘병적 증상’이 돼 버린다. 이에 따라 여성혐오 관련 이슈는 힘이 떨어지고 정신장애 치료체계 미비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며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경찰의 발표나 대중매체의 보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신영전 교수는 “사회문제를 개인의 질병 문제로 과도하게 축소하려는 지배 권력의 교묘함과 싸우며,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가 아닌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발표함으로써 ‘여성혐오 사회’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정신장애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의 대안으로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는 공공 화장실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보다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을 규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는 5월 31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로 활동하는 신석철 씨가 한 발언을 소개했다. 신 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6차례나 입원했던 가해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었을까? 정신장애인이 혐오 대상으로 남는 것과 함께 어울리며 사는 환경 중 어떤 것이 당사자와 사회에 더 좋을까?”하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강혜민 기자는 정신장애인을 치료 대상만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둔 신 씨의 발언을 존중하며,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재생산하는 언론에 경계심을 내비쳤다.

서울동북부지역 대표 활동보조교육기관 새보람 교육원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보람교육원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활동보조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커뮤니케이션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입니다.



◆ 교육이수 시간

- 신규 기본 교육 : 40시간
- 유사경력자 교육 : 20시간

◆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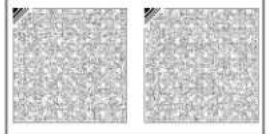
- 신규교육 :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인의 활동보조가 가능한 분으로 정신질환자,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 법률에서 정한 교육 부적합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유사교육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 교육비

- 신규교육 : 10만원
- 유사경력자 교육 : 5만원

◆ 모집인원

- 상시모집 00명
- (매주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 차기교육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경기지장협-경기복지재단 업무협약

장애인 권리향상 위한 협력 모색



경기지장협과 경기복지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는 6월 2일 경기복지재단(누림센터장 운영법인, 대표 박준배)과 '장애

인 권리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제해결 지원 ▲권리증진을 위한 논의 ▲실태조사 및 연구자료 정보제공 ▲권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위기사례 발생 시 공동 사례 개입 등이다.

장애인 상담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침해 및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증진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경기지장협은 1995년부터 경기도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장애인의 고충 해소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특히 시·군지역별 민원상담 담당자를 선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장애인 대상 촘촘한 상담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기존 경기도장애인복지

관에서 기능변환을 했다.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확대한 공역 허브기관이다. 도내 분산된 장애인복지 정보통합의 공역 허브역할을 하며, 이중 스마트종합민원팀은 다양한 공적·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민원 처리를 하고 있다.

김기호 협회장은 "장애인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많아도 헛되지 않다. 장애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 내 장애인의 고민이 없어지는 날이 올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상시 관리처 마련

의왕시 장애인 이동 및 접근권 향상 기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지회장 송기섭, 이하 의왕시지회)가 의왕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의왕시지킴이센터)를 개소했다.

6월 14일, 의왕시 보호작업장 1층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협회장, 김성제 의왕시장,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전경숙 의왕시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의왕시지킴이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의왕시지킴이센터는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계도할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만들어졌다. 센터는 2014년 10월 제정된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주요내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장애인권리확보 사업이다.

의왕시지회가 2년 동안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킴이센터는 센터장을 포함, 직원 3명으로 구성됐다.

의왕시지킴이센터의 주된 활

동은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 단속 및 상시 계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회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 민원접수 및 고충처리 등이다.

김포시지회 장애체험행사 개최

월곶초등학교 학생, 시각 및 지체장애 체험



학생들이 시각장애 체험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김포시 월곶초등학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애체험 행사를 벌였다. 이날 체험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김포시지회(지회장 이경규)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제도민족진단이 주관했다. 체험은 학생과 교사, 행사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사용하는 당사자와 이를 안내하

는 동반자로 역할을 나눠 체험했다. 이어서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오르는 지체장애인 체험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자료를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한 교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린이들이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더 따뜻한 시선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보장구 청소 및 소독 행사

수원시의원, 현실성 있는 지원책 검토 밝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지회장 최종현)는 5월 31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청소 및 소독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많은 장애인이 보장구를 타고 참석해 점검을 받았다.

행사에서 최종현 지회장은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많은 만큼 이를 수리하는 센터가 많이 생겨야 한다"며 수원시의 지원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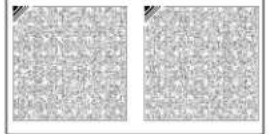
이 자리에 참석한 염상훈 수원시의원은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보장구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은수 시의원은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수원시지회가 장애인보장구 점검을 하고 있다.



제주도 중증장애인 나들이

탁 트인 야외에서 추억 만들기



나들이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종, 이하 제주지체협)는 6월 1일 중증장애인이 48명과 직원 및 자원봉사자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증장애인 '숨트기' 나들이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매주 집과 병원만을 오가던 중증장애인이 가족들과 함께 탁 트인 야외로 나감으로써 마음의 여유를 찾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더마

파크에서 말 공연을 관람하고 한림공원을 방문해 산책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형종 협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체협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6월 2일부터 9일까지 서귀포 성산 일출도서관 1층에서 카툰전시회를 진행했다. 총 20종을 전시하며 관람객에게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제공했다.

문경 온누리스포츠센터 준공식

장애인 체육 발전 및 저변 확대 기대



문경 온누리스포츠센터 준공식에서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 문경시 문경시민운동장 일원에 지어진 장애인 체육관 '문경온누리스포츠센터'의 준공식이 열렸다.

이날 고윤환 문경시장장을 비롯

해 시·도의원, 각 기관단체장, 장애인 단체 대표, 시민 등 5백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식전행사, 체육관 건립 경과보고, 문경시장의 기념

사, 내빈 축사, 테이프 커팅 순서로 치러졌다.

문경 온누리스포츠센터는 탁구, 농구, 배드민턴 등의 시설을 갖춰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센터의 체육단련실에는 러닝머신 외 헬스기구 20여 종을 갖춰 장애인의 재활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박홍진 문경시지회장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제약과 어려움이 많다"며 "장애인체육관은 장애인 체육 발전 및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이동상담 실시

김천시지회, 지역 장애인 불편 해소



김천시지회가 장애인 이동상담을 실시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는 6월 8일 대항면사무소에서 이동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이동상담은 '김천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의 일환으로 대항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동상담에서

는 2016년에 변경된 복지시책을 홍보하며 상담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를 나눴다.

이날 대항면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모(남, 77세) 씨는 이날 상담을 통해 통신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포항시지회-한국노인인력개발원-포스웰 맞손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경목, 이하 포항시지회)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정종보), 그리고 포스웰(이사장 양홍열)은 6월 9일 포스웰 사무실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웰은 포스코의 복리후생 전문 기업으로, 경북 포항과 전

남 광양지역에 걸쳐 단체급식, 수련관, 마트, 아울렛, 레포츠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포스웰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포항시장애인취업지원센터와 협력해 시설 관리 및 급식 보조 등의 직무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지회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동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인력을 모집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제반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포항시지회 이경목 지회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기업, 민간 단체가 상호 협력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취업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항시지회-한국노인인력개발원-포스웰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북부장북-에이블세라미스트 MOU

장애인 도예가 양성 및 문화예술 증진



북부장북-에이블세라미스트가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립북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 이하 북부장북)과 에이블세라미스트(대표 차화숙)가 6월 13일 장애인 도예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이블세라미스트는 Able(할 수 있는)+Ceramist(도예가) 합성어로 장애인의 도예 가능성을 발굴하고, 도예작가로 견인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부장북과 에이블세라미스트는 앞으로 장애인 도예교육 및 장애인 예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손영호 관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에이블세라미스트와 복지관이 협력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부장북은 고객의 꿈과 행복을 위해 늘 앞서가는 복지관으로 장애인 미예찬 동호회를 활성화해 이음센터, 서울서부지방법원, 노원구청 등과 연계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신진 장애인 미술작가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충남남부장북, 주간보호 현장학습

서툴지만 직접 만드는 즐거움 느껴

충청남도남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서현미, 이하 남부장북)은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와 함께 상반기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6월 9일 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우리밀 생산사업 특화마을인 세동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실시한 이번 현장학습에서는 우리밀 찐빵과 칼국수 만들기를 체험했다.

오후에는 세동마을 주민들이 재배하는 제철 채소를 구경하고, 마을 풍경과 이야기가 함께 녹아 있는 벽화마을을 둘러보았다.



충남남부장북이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남부장북 관계자는 “조금 서툴지만 직접 만든 찐빵, 칼국수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남부장북 주간보호시설은 하반기에도 현장학습을 준비할 계획이다.

괴산장북 성장멘토링 간담회 개최

장애 가정 청소년 정서적 지원 준비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은 6월 13일 복지관에서 2016 장애가정청소년 ‘성장-mentoring’ 제2차 멘토간담회를 열었다.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하고 우체국 공익재단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괴산군장애인복지관이 공동주관하는 성장멘토링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 가정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행동 특성과 원인 및 중재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유림 멘토는 “현직 특수교사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교육방법 및 문제행동의 중재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교육 내용의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며 “전달받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멘티 아동과 함께 성장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효선 관장은 “성장멘토링에 참여하는 아동의 자기능력 향상과 정서적 지지 등 부족한 양육환경을 보충해 스스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제2회 사랑이 가득한 가족여행

장애인 가족의 소중한 추억 만들기



제2회 사랑이 가득한 가족여행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19~20일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성도, 이하 유성장북)은 1박2일간 ‘제2회 사랑이 가득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다름팀후원회에서 여행경비 일체를 후원했다. 평소 여행기회를 갖기 어려운 장

애인 13가족이 참가해 총 28명이 모였다. 이들은 천리포수목원부터 시작해 안면도 나문재관광농원, 백사장해수욕장, 간월도 등지를 여행했다.

이번 여행에 참가한 한 장애인 가족은 “근육병으로 움직이기 힘들어 마지막 여행이라 생각하고 올랐다”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손성도 관장은 “장애인 가족이 소중한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장애인 여행을 계획하겠다”고 전했다.

공무원의 결혼 축의금 기부

“어려운 장애인 가정 돕고파”

용인시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자신의 결혼 축의금 일부를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아름다운 사연의 주인공은 처인구 중앙동 주민센터 복지과에 근무하는 오명인(29세) 실무관이다. 그는 지난 4월에 결혼식을 치른 후 가족과 상의해 축의금 중 50만 원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관장 과상규)에 기부했다.

오명인 실무관은 주민센터 복지과에 근무하며 평소 장애인과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사정을 잘 헤아릴 수 있었다. 그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행복하다”며, “신체적 어려움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후원금은 용인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부부에게 생필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제13회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한 축제의 장



제13회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전경.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성남장북)은 5월 20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 '제13회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6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1부 어울림체육대회에서 RC카 레이싱, 딱지치기, 술런게임, 보드게임 등 7개의 부스를 통해 몸을 풀었다. 이어지는 2부 명랑운동회는 공도미노, 볼볼공 던지기, 파트너십 게임, 풍선탑 쌓기 등 단체

게임으로 진행됐다.

체육대회에 참여한 박 모 씨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과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어 좋았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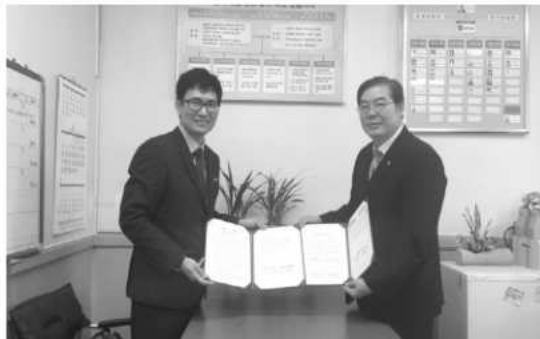
체육대회는 한화테크윈이 후원했고, 박상복 성남시 복지보건국장, 김병관 국회의원, 이나영 경기도의원, 지관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안광환 성남시의원, 한국철도공사 야탑역 김세환 역장 등 각계각층의 내빈이 방문해 자리를 빛냈다.

홍성장북-아세아시멘트 MOU 재가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협력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천규, 이하 홍성장북)은 6월 7일 (주)아세아시멘트홍성공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세아시멘트홍성공장의 임직원은 그동안 재가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에 보람을 느낀 아세아시멘트 측은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홍성장북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추진했다.

홍성장북 관계자는 "지역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아세아시멘트홍성공장 임직원에



홍성장북과 아세아시멘트 홍성공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후원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복지관도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부도에서 활력 충전 진천장북, 자원봉사자 나들이



자원봉사자 나들이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 이하 진천장북)이 자원봉사자 나들이를 실시했다.

5월 24일 진행된 자원봉사자 나들이에는 평소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40여 명이 참가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서해 바다와 대부도 유리섬박물관을 관람했고 종현어촌마을에서 갯벌 체험을 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다.

진천장북 한명수 관장은 "평소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 장애인을 위해 아낌없는 재능 기부를 해주신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2016 아나바다 장터 열려

달구벌복지관, 지역주민 교류 마당 제공



아나바다 장터에서 어린이가 물건을 고르고 있다.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관장 강재형, 이하 달구벌복지관)에서는 5월 28일 2016 아나바다 장터를 개최했다.

복지관 장난감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장터는 중고물품을 포함해 각종 생활용품과 팬시 프리마켓 부스가 강당을 빼곡히 채웠다. 이밖에 우드팬시 체험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달구벌복지관 측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중고 물품을 교환하면서 지역사회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며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가족단위로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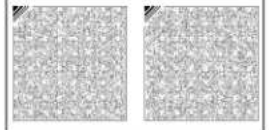
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터에 참여한 주민 방지일 씨는 "가족들과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했다"며 "어린 자녀에게 값진 교육을 한 것 같아 보람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진행된 아나바다 장터는 3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했고, 이날 수익금의 10%는 장애인 복지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한편, 차기 아나바다 장터는 10월 1일 달구벌복지관 1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제11회 사랑해바자회 성료

의정부장북, 엔젤맘 현영과 나눔 실천



제11회 사랑해바자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춘희, 이하 의정부장북)에서 '제11회 사랑해(海)바자회'가 열렸다.

이번 바자회는 물건 판매에 국한된 기존 바자회 형식에서 벗어나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했다. 바자회에는 현영의 뽀나미슈, 웰메이드 코리아, 티밥미디어가 후원업체로 참여했다. 또 인기 방송인 엔젤맘 현영 외 많은 연예인들이 후원금 기부 및 봉사활동을 펼치며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이에 의정부장북은 엔젤맘 현영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나눔 실천을 격려했다.

한편 바자회 수익금은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아산장북 산재근로장애인 지원

몸과 마음의 휴식 '쉼(休)' 프로그램 개강



아산장북 산재근로장애인 사회응용프로그램 개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은 6월 1일 산재장애인의 자립의지 고취와 재도약을 위한 사회응용프로그램, 몸과 마음의 휴식 '쉼(休)'을 개강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으로 시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18일간 사회 적응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기능향상 프로그램(MBTI 성격유형검사, 이고그램과 인생태도,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감 회복, 웃음치료), 사회기능향상프로그램(가족스

포츠 여가활동, 문화생활, 생활체육&재활치료, 건강검진), 직업기능향상프로그램(직업재활, 취업성공사례, 취업준비, 사업제방문,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창업정보) 등으로 구성됐다.

이창호 관장은 "사회응용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한 여러분의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자 정 모 씨는 "이번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문경장북, 방문간호 제공

지역 장애인 건강증진 기여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북)은 지난 2007년부터 문경제일병원 간호사회(회장 박선신)와 연계해 방문간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경장북 담당자는 매일 정기적으로 문경제일병원 주간호사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기초검진과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꼼꼼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으며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

고 있는 담당 수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소변줄 교체와 욕창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장애인 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박선신 회장은 "앞으로 방문간호 사업을 더욱 열심히 펼쳐 형편이 어려운 지역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간호사회는 방문간호 봉사활동뿐 아니라 취약가정에 생필품도 지원해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발표

영천장북, 장애 편견 해소 기여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계근, 이하 영천장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6년 장애인식개선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을 전달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초·중·고등학생의 포스터 48점이 접수됐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상작을 선

정했다.

공모전 초등부 대상은 포은초등학교 배민주 학생의 포스터 '마음의 문을 열어요!'가 선정됐고, 중·고등부 대상은 성남고등학교 고은지 학생의 '함께 걸어가면 더 좋은 세상'이 차지했다. 그밖에 최우수상과 우수상도 각각 선정해 발표했다.

영천장북 관계자는 "2016년 장애인식개선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하



초등부 대상, 포은초등학교 배민주 학생의 작품. '마음의 문을 열어!'

다"며 "공모전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6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현장스케치



2016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전경.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아름다운배우자상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이 아름다운배우자상을 전달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이 자립상을 전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병돈 상임대표가 가화상을 전달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현현 회장이 특별상을 전달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손영호 부회장이 특별상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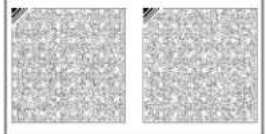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건휘 부회장이 특별상을 전달했다.



박마루 서울시의원이 모범배우자패를 전달했다.



헤민스님이 힐링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김광환 중앙회장이 대회를 하고 있다.



김광환 중앙회장이 장한배우자상을 전달했다.

‘2016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장한배우자상’ 수상 후기

내 삶의 조각

정용진 · 남궁진 부부

영화 같은 삶을 꿈꾸다

식사하세요. 난 애고 없는 딸투로 말을 합니다.

콩나물국에 잘 익은 김치 한 접시! 흑흑한 겨울을 잘도 이겨내고 우리 식탁까지 몸소 마중 나온 향긋한 냉이 한 접시, 암탉이 낳은 계란으로 정성껏 만든 계란말이. 행복한 만찬 앞에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불현듯 지나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남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식사 자리지만 우리에게겐 멀고 험한 산을 넘은 뒤에야 맞은 감격의 자리입니다. 이런 기적 앞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숙연할 따름입니다.

혈없는 유년 시절에는 결혼만 하고 나면 마법의 성에서 영화처럼 아름답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는 47세의 시어머니, 대학생 시동생, 연년생 시누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혈없는 환상 속에 마법의 성 놀이는 깨끗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의지하며 어렵게 시집살이에 입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티격태격 얹치락뒤치락하며 사랑의 밑그림을 그려갈 즈음 먹물이 송두리째 쏟아져 버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유난히도 추웠던 그날이 떠

오릅니다. 1994년 12월 31일 어느 때처럼 남편은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르르 떨던 전화벨……. 믿기지 않는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구급차에 실려온 남편이 알몸으로 누워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선 역한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남편의 차는 출근길에 빙판에서 남떠러지로 추락하며 전복됐다고 했습니다. 위중한 남편은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아홉 살과 열 살짜리 어린 두 자녀를 시어머니께 맡겨 놓은 채, 기억 없는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의 하루하루는 삶과 이승의 경계에서 오락가락 피를 말리는 외로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사의 기로를 헤매다 힘들게 정신을 차려 다시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고비 끝에 중환자실을 나오는 날 우리 가족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꿈이라든 얼마나 좋을까 수없이 부정해 보았지만, 분명한 것은 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길고 긴 병원생활, 일 년이 다 돼서야 입원실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전신마비 장애1급이란 계급장만 단 채 손끝하나, 발끝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살아있지만 목 밑으로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치료라도 마음껏 받아 보고 싶었지만, 본인이 운전할 수 없으니 사고가 난 것이라 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이 나왔습니다.

불행과 고통의 연속

엮힌 데 덮친 격이라 했던가요.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원인 모를 화재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 타버린 현장을 돌아보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네 식구 평온하게 잠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 밖으로 나왔지만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병든 남편과 어린 두 자녀, 그리고 병원비 낼 돈도 없는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은 여기에서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몸에 기운이 없고 내내 파곤했습니다. 그런지도 한참 지나 병원에 들르니 유선암에서 입파선암으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주치의는 기도, 식도, 성대에도 이미 전이된 수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기하며 살았습



니다. 나는 남편의 수발과 아이들 육아를 책임지는 상황이기에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되지 않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가족의 형편은 더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39살의 나는 고독하게 죽어가면서 소리쳐 울 수도 없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반항 한번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조금씩 살아난 감각

연제부터인가 남편은 발가락 한 마디를 움직였고, 손가락도 하나 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추기면 몸의 균형도 조금씩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반가웠던 것은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팔짱끼리는 소리에 놀라서 깨보니 남편이 옆으로 누운 채 방바닥에 흥건하게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용변을 보지 못해 기구와 약물로 내가 처리를 해 왔는데, 소변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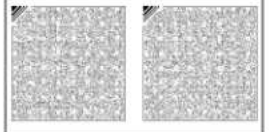
남편은 사고 후 18년이 흐른 뒤부터 배뇨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정상 배뇨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그 밖의 몸의 기능도 외출이 가능할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열악한 가정환경에서도 두 자녀는 바르고 곧게 자랐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수석으로 입사했고, 딸은 간호사란 직분으로 성실하고 보람 있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스하고 감동 어린 사랑으로 내 몸의 아이란 녀석들은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행과 고통이 겹쳐서 오듯이, 행복도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바람이 우리 가정을 흔들었지만, 우리는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사랑하며 버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하면 고된 삶 속에서도 행복을 나누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절망의 늪에서 통곡소리도 내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여!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응원하며 마지막 그 하루까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시각장애인을 위한 광학인식 음성독서기 '책마루2 OCR ET' ©자원메디칼

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업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번 행사가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가 공적급여(건강보험 등)로 제공되어 점자정보단말기와 같은 보조기기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원메디칼은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점자정보단말기 등의 보장구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책마루2' 30대, 서울시 장애인 무상 전달

자원메디칼, 서울시와 사회공헌 협약 따라

정보통신 보조기기 전문업체인 (주)자원메디칼은 3년 동안 3억원 상당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서울시 장애인에게 후원하기로 하는 사회공헌 협약의 일부로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책마루2 OCR ET 30대를 서울시 시각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전달했다.

책마루2 OCR ET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기능 데이지 플레이어로써 독서, 음악, 문서인식, 팟캐스트 청취, 녹음 등의 기능을 음성 안내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인쇄물을 그림이나 텍스트 등의 전자 문서로 저장해 음성으로 재생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이거나 저시력자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인쇄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광학 전시회에서 '로우 비전(Low Vision)' 분야 최고로 선정된 제품이다.

보조기기를 전달받은 시각장애인 박씨는 "직장에서 외국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학공부의 부족한 점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



자원메디칼이 책마루2를 전달하고 있다.

번에 전달받은 책마루2 OCR ET를 통해 어학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자원메디칼 김용태 팀장은 "시각장애인 보장구가 공적급여로 지원되어 시각장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자원메디칼이 시각장애인의 자부심이 될 수 있

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데이터센터 이계현 소장은 "서울시에서는 매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신청하시는 분들에 비해 보조기기 공급이 부족한 점이 아쉬웠다. 자원메디칼에 이러한 고충을 토로하고 해결점을 찾아보니 이렇게 좋은 계기가 마

련되었다.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순봉 상임이사는 "서울시에서 좋은 사업을 자원메디칼 측에 요청해 성사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나라의 보조공학 기기에서 자원메디칼과 같은 시

근로자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성남시 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공드레

문의

Tel. 031-734-9965
Fax. 031-734-996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26번길 10
<http://snhands.co.kr>

성남시 보호작업장은 근로자들과 함께

쇼핑백 주문제작 및 각종 임가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백 주문제작 / 양말세트 주문제작 / 각종 임가공(조립, 포장 가능)
"양말세트, 쇼핑백 각종 임가공" 문의 주세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관"

2016 장애인창작아트페어 성료

장애예술인의 자아실현과 판로 개척



장애인창작아트페어 방문객들이 작품 문의를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한국장애인미술협회(회장 김충현)가 주최하고 장애인창작아트페어조직위원회와 한국장애인서예협회가 공동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등이 후원한 '2016 제3회 장애인창작아트페어'가 열렸다.

국내 장애예술인의 독창적 예술작품 전시해 미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기획한 이번 아트페어

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립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아트페어는 장애예술인의 자아실현과 판로 개척을 위한 부스개입으로 전문 아트페어 성격을 강화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장애예술인 60명의 부스와 다양한 특별전을 구성해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바퀴달린 성악가의 희망다리 콘서트

최초 무신경 성악가 이남현, 기적의 노래

바퀴달린 성악가로 알려진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이남현 교수가 6월 11일 대학로 이음센터 스튜디오에서 '희망다리 콘서트'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이번 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티스트가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며 관객과 호흡했다. 피아노,

오보에, 클라리넷 등의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한국가곡, 외국가곡, 크로스오버, OST연주곡 등의 폭넓은 노래가 울려 퍼졌다. 콘서트를 관람하는 만원 관중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집중하고 환호했다.

콘서트를 주최한 이남현 교수는 "장애인 음악가들이 무대

에 서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인 음악가와도 교류하며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콘서트를 개최했다"며 "음악을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남현 교수는 사고로 목신경이 끊어지고 전신이 마비됐지만 꾸준한 음악 연구와 노력



희망다리 콘서트의 아티스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남현

을 지속해 최초의 무신경 성악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는 "제 꿈인 노래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

께한 이번 콘서트가 관람객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나누는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공연 소감을 밝혔다.

리우패럴림픽 D-100 미디어데이

국가대표 선수단 합동 기자회견, 선수단복 시연회 등



2016 리우패럴림픽대회 D-100일 미디어데이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김성일)가 5월 30일 2016 리우패럴림픽 개막 D-100일을 맞아 이천훈련원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리우패럴림픽 준비 현황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합동 기자회견, 선수

단복 시연회, 훈련원 입춘종목 자유 취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김성일 회장, 손진호 사무총장, 이명호 훈련원장, 대한민국 선수단 정재준 단장을 비롯해 최경식 타구감독, 정영주

양궁감독 등 메달 유망 지도자 5명과 선수 7명이 참석해 패럴림픽 준비현황 및 참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패럴림픽에 처음 출전하며 활약이 예상되는 서수연(타구), 조기성(수영), 김민수(양궁), 대한민국 선수단의 최연소 선수인 윤지유(타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성일 회장은 "지금까지 많은 땀방울을 흘려온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기량을 끌어올리고 부상 없이 컨디션을 관리하기를 바란다"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정재준 단장은 "금메달 11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12위 이상의 성적을 달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민대통합마라톤대회 열려

특전사전우회 등 1만여 명 참가



국민대통합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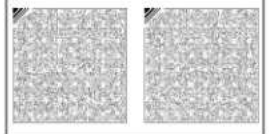
6·25전쟁 66주년을 맞아 민·관·군이 함께하는 국민대통합마라톤대회가 6월 18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평화광장에서 열렸다.

마라톤은 6·25전쟁을 상기시키는 의미의 6.25km를 비롯해 10km, 하프코스 등 3개 종목에 특전사전우회 등 1만여 명이 참가했다. 6.25km 코스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을 출발해 하늘공원 주차장→난지 하늘다리→하늘공원→구름다리→월드컵 평화의 공원으로 이어졌다.

행사 당일 월드컵 상암경기장 평화의 공원 일대에서는 ▲6·25전쟁 사진전 ▲참전군 기념 전시회 ▲아군 및 적 장비 전시회 ▲의장대 의장시범 및 특전사 특공무술 ▲국민 대통령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민대통합마라톤대회는 (사)대한민국특전사전우회가 주최하고 국민대통합마라톤조직위, 항우산업(주)이 주관하며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방부,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tbs교통방송 등이 후원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 오토바이 투어 화제

영국인 부부, 베트남 호찌민 관광 지원



'사이공 친구 투어'에서 장애인 오토바이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Disabled World

베트남 호찌민시에 장애인을 위한 오토바이 투어가 화제다. 영국인 앤디 고릴과 그의 아내 리 캄 투는 장애인들이 호찌민시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고려한 오토바이 투어를 만들었다.

고릴 부부는 일 년에 한두 번씩 장애인 오토바이 투어를 개최하고 있다. 고릴은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여행하는 데 불편한 곳이 많다"며 "장애인도 호찌민시의 멋진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오토바이 투어를 시도하게 됐

다"고 밝혔다.

고릴 부부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장애인들이 일반 관광뿐 아니라 모험심이 필요한 각종 레저 스포츠도 편의시설을 이용해 즐길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베트남에서도 장애인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어를 만들었다.

고릴 부부는 지속적인 오토바이 투어를 위해 '사이공 친구 투어'라는 여행사를 만들고 장애인 단체인 DRD (Disability Research & Capacity Develop-

ment)와 제휴해 장애인 관련 각종 기술 교육 과정에 참석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고릴은 '사이공 친구 투어'는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고객에게 1달러씩 참가비를 받아 DRD에 기부하고 있다.

DRD의 루 티안 이사는 "장애인을 위해 오토바이 투어를 만든 고릴 부부에 고맙다"며 "언제든지 전문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DRD 측은 사이공 친구 투어에 받은 기부금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계단 오르는 꿈의 휠체어 부활

도요타, 차세대 아이봇 개발 예고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가 미국에서 생산 중단된 계단 오르는 휠체어 부활을 예고했다.

도요타북미법인은 DEKA연구 개발과 협력해 차세대 '아이봇 (iBot)'을 만들 예정이라고 5월 21일 밝혔다. DEKA는 세그웨이를 개발한 딘 카멘이 설립한 업체로 이미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전동 휠체어 아이봇을 내놓

아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아이봇은 두 세트의 회전 가능한 전동바퀴를 통해 자갈이나 모래판 등에서 이동할 수 있다. 또 일어설 수 있어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집거나 비장애인들과 같은 눈높이로 대화할 수 있다. 일명 '꿈의 휠체어'로 불리며, 미국 대통령까지 딘 카멘을 백악관으로 불러 진지하게 논의했던

화제의 발명품이었다.

그러나 일부 불안해 보인다는 반응과 의료보험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부진을 겪었고, 결국 2009년 아이봇 생산이 중단됐다.

도요타 측은 아이봇의 차세대 버전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전동 휠체어 '아이봇'. ©Toyota

사진 읽어주는 페이스북

인공지능 기술로 사진 내용 판별



페이스북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로 사진 내용을 판별해 읽어 준다. ©Facebook

페이스북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로 사진 내

용을 판별해 읽어 주는 기능을 도입했다. 페이스북은 이 기능을 '자동 대체 텍스트(AAT)'로 이름 붙였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은 스크린 리더로 페이스북 내용을 파악해왔다. 이때 별도의 사진 설명이 없으면 "OO의 사진"이라는 음성 안내만 나와 사진을 올린 사람의 이름과 콘텐츠가 사진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AAT가 도입되면서 스크린 리더를 켜고 화면을 스크롤

하면 "아외에서 웃고 있는 사람 세 명", "두 사람이 미소 짓고 있음, 선글라스, 하늘, 야외, 물", "피자, 음식" 등으로 사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은 음성으로 설명을 듣고 사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은 먼저 애플 iOS용 영어 서비스부터 AAT를 도입했다. 앞으로 안드로이드 등 다른 플랫폼들과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아이폰의 '보이스오버(VoiceOver)' 기능을 켜야 한다. 음성으로 '보이스오버 켜기'를 명령하거나 아이폰 설정에서 '일반-손쉬운 사용-보이스오버'를 선택한 후 이를 켜면 된다.

AAT를 개발한 사용자인터페이스(UI) 엔지니어링 접근성 전문가 맷 킹은 페이스북 본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AAT를 시연하면서 개발 과정과 기능을 설명했다.

대학 시절 시력을 잃은 킹은 AAT를 통해 정확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성이 낮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킹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페이스북의 접근성 책임자 제프 윌런드는 "시각장애인이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경험하는 데 AAT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AAT가 '사람', '나무', '야외', '음식', '미소 짓고 있음' 등 약 100개의 키워드를 조합해 사진 내용을 설명하지만, 앞으로 시험을 거쳐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밀성도 높아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밝혔다.

2016년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임직원 권역별 보수교육

전국 편의센터 임직원이 모여 성황리에 종료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박경준 대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지체장애인의시설중앙지원센터(중앙센터장 김광환, 이하 중앙센터)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수도권(강원 포함), 충청권, 전라권(제주 포함), 경상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센터장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의시설지원센터(이하 편의센터) 임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보수교육은 편의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전달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금번 교육에서는 대행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자세, 편의센터 제규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편의센터는 2016년 3월 28일 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편의센터 임직원이 편의시설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1회차(5월 30~31일)는 광주·전라권(제주 포함) 임직원을 대상으로 광주 518교육관에서, 2회차(6월 1~2일)는 부산·대구·경상권 임직원을 대상으로 문경STX리조트에서, 3회차(6월 7~8일)는 수도권(강원 포함) 임직원을 대상으로 양평대명리조트에서, 4회차(6월 9~10일)는 대전·세종·충청권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령비체펠리스에서 각각 실시했다.

먼저 김광환 중앙센터장은 특강을 통해 편의센터 임직원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전국 조직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조직 전체에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각 지역센터장에게는 센터 직원이 편의증진 고위 업무에 집중할



김광환 중앙센터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부산·대구·경상권 임직원 교육 후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중앙센터 홍현근 편의증진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준적합성 확인자등 윤리·행동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적합성 확인업무 수행자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강조하였다. 또 센터장에게는 불공

정한 업무지시나 선물 거부할 당부했다. 또 새로이 시행되는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과 비교하며 편의센터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음 시간에는 박성오 부장이 향후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서의 추진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세부내용으로는 확인업무 수행 내용, 연간 교육 일정, 홍보방안 등으로 앞으로 수행할 세부사항을 전달하고 편의센터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처리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세부적인 업무프로세스를 안내했다. 또 저녁 시간에 있을 조별



보수교육을 듣고 있는 임직원들.



편의센터 직원들이 분임토의를 하고 있다.

분임토의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다음 날 있을 분임토의 발표 준비를 전달했다.

이튿날 강의는 홍현근 국장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의 세부내용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최근 개정된 법률 내용 및 접근성 표지, 실제 편의시설 기술 협의사례 등에 대한 심화강의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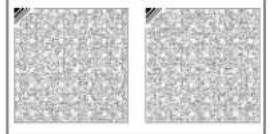
다음으로 박성오 부장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세우터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앞 시간의 홍현근 국장의 강의에 이어서 편의시설 기술협의 사례와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에 대한 세부 설명도 진행했다. 추가로 조만간 실시 예정인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사용승인 이후 철회되거나 관리하지 않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타당성에 대해 알리며 조사계획을 전달했다.

이어서 조별 분임토의 결과발표가 있었다. 편의센터 발전을 위한 지역센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문제점 발견과 해결방안, 발전방향 및 비전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보수교육을 비롯하여 앞으로 진행될 교육을 통해 편의센터 직원이 편의시설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편의센터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이로 인해 편의센터 직원이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여 편의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이번 보수교육으로 편의센터 임직원이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라는 공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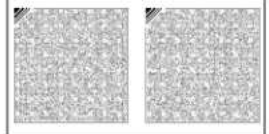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장애인공단, 탐앤탐스 등 17개 업체 발표

소리로 읽는 새보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인 우수사업주를 선정했다. 공단이 발표한 '2016년도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총 17개 업체이며, 이중 올해 신규로 선정된 사업체는 10개사다. 그밖에 7개사는 인증 기간 만료로 재선정된 사업체다.

먼저 신규로 선정된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중 탐앤탐스는 상시근로자 517명 중 25명이 장애

인으로 고용률이 8.7%에 이른다. 탐앤탐스는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위한 탄력적 근무제와 시간 선택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직영매장에 '1개 매장 1명 이상'의 장애인 채용'을 목표로 중증장애인을 모집해왔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를 통해 장애인을 특별 채용하고 있다. 고충 접수 전화 및 비상

연락망을 24시간 운영하고, 매년 점장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적응력을 높이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이번에 선정된 이랜드파크는 장애인근로자 160명(장애인 고용률 3.65%) 중 정신, 뇌병변, 지적, 자폐성 등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87.5%(140명)에 달한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며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

다른 신규사업주로는 그린씨에스,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에코스엠, 신형아이엔티, 코레일관광개발, 하누리, 포스코휴먼스, 목화표장갑이 선정됐다.

재선정된 사업주는 덕수플렉스, 하나마이크론, 오라이트, 동진컴퍼니, 에스원CRM, 조이라이프, 에이스푸드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

을 받으면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무상지원 선정 시 우대,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국방부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조달청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중소기업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부여,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유효기간은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이다.

카카오자회사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링키지랩, 다양한 편의시설 갖춰

카카오자회사 링키지랩이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으로 인증을 받았다. 링키지랩은 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

기 위해 카카오가 올해 초 설립한 자회사다.

링키지랩에는 현재 전체 직원

의 약 90%에 달하는 24명의 장애인(중증장애인 19명, 경증장애인 5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

은 검색 키워드 분석과 모니터링, 콘텐츠 소재 발굴 및 제작과 같은 카카오의 서비스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링키지랩 사무실은 휠체어를 타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문턱을 없애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 안마시설, 전통 놀이 책상, 전자 헬압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 퀴즈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1988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문화예술인을 발굴해온 대표 행사로 올해 29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6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이 행사의 이름은?
2.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6월 8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스포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어디일까?
3.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독자의견

민원상담면을 통해 과태료감경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뉴스에서 안내한 문화누리카드 설명도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재

최근 장애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장애여행지나 여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민식

응모요령

응모요령 :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이메일 : news@kappd.or.kr〉

※ 주소와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 정답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당첨자

경기 의정부시 김상재
부산 동구 송민식
전북 군산시 전기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작업장
가브리엘 작업장



"천연비누세트, 답례품, OEM"

필요한 제품 주문해 주세요.
소중한 사업에게 하는 선물·행사 선물을으로도 좋습니다.

첨하시는 문구/이미지 예쁘게 넣어 드립니다.
원고 쓸 수 있는 비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거장은 장애인성상을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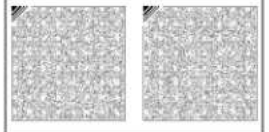
가브리엘천연비누 1구 가브리엘천연비누 3구 가브리엘천연비누 4구 비누팩(7종세트)

♡문의♡

Tel. 02-951-9707 Fax. 02-951-9708
서울시 노원구 한남비치로 24라길 04-13
http://www.gabrielcenter.or.kr

민원상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임상범 기획정책국장보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Q)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장애인 근로자와 같이 보조공학기기를 무료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사업주

에게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무료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는 장애인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

니다. 이 제도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또는 무상지원 조건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업주도 장애인 근로자처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을 해 주고 장애인 사업주는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A) 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단체들은 같은 장애인인 사업주와 근로자는 장애로 인해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지만, 사업주라는 이유로 인해 그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차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분류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조건은 사업장 규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업

종의 기업이라고 해도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면 지원이 되고 4명이 넘으면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비영리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단체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소장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입니다.

그 규모가 총 근로자 수 4명을 초과해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사업주와 동일한 조건에 직면하고 있어 장애인제도개선 솔루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원 자격조건 완화를 건의했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질문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민원상담실에 올려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립니다

복지뉴스

모두가 행복한 무장애여행

한국관광공사는 남녀노소,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여행을 안내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korean.visitkorea.or.kr) 상단 메뉴 맨 오른쪽 '구석구석플러스'를 클릭하면 '무장애여행' 페이지가 나온다.

◇ 무장애관광정보=지체, 시각, 청각장애와 영유아가족 유형별로 클릭한 후 여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관광지, 숙박, 음식점, 행사 정보가 나온다.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지를 클릭하면 해당 관광지의 이용안내와 함께 무장애 관광 정보가 기재돼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부터 경사로나 접지블록, 장애인화장실과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등이 나와 있다. 영유아가족의 경우 유모차 대여와 수유실 여부가 기재돼 이용 편의를 돕는다.

◇ 무장애여행코스=장애인, 영유아, 노인 별로 추천 여행코스를 내놓았다. '호반에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무장애여행 안내. ©한국관광공사

서 즐기는 시원한 뱃놀이, 충북 충주' '전망, 체험, 공연 그리고 막걸리까지, 오감으로 느끼는 전주한옥마을' 등 테마에 맞춰 코스를 안내한다. 여행지 별로 당일코스나 1박2일, 2박3일 등 기간에 따라 다른 추천 여행 코스도 제공하고 있다.

◇ 유용한 정보Tip=돌봄여행 서비스나 문화해설사 동반 여행 등 장애인 여행 도우미 사이트를 안내하고, 지역별 콜택시 전화번호와 전통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관광버스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핸드콘트롤러 운전과 전통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렌트카

정보도 나와 있다.

◇ 장애인용 객실 체크=2014년 4월 이후 신축, 증축, 개축한 객실 수 30개 이상 숙박시설은 장애인용 객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근래 새로 지어진 숙박시설 위주로 장애인용 객실 여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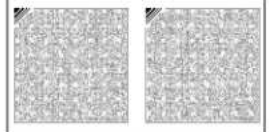
문의하는 게 좋다.

장애인용 객실이 있는 호텔에서 숙박할 경우 호텔 전문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호텔에 직접 예약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고객 요청사항에 장애인용 객실 배정을 요청하면 된다. 장애인용 객실이 많지 않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예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애인 객실이 있더라도 욕실에 샤워용 의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샤워용 의자가 있는지 문의하고, 없다면 플라스크 의자를 준비해달라고 미리 요청해야 한다. 준비가 안 된다면 직접 챙겨가는 것이 편리하다.

국립자연휴양림(www.uyang.go.kr)은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19개)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객실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현관 진입 턱을 제거하고, 경사로와 접지블록,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갖췄다. 신청 접수는 매월 4~8일까지 5일간 받으며 사용인 결정은 같은 달 13일에 발표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입해 전쟁과 빈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모금광고처럼 우리는 특정 개인의 질병이나 아픔을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중점을 두어 홍보를 해야 한다.

장애인은 특별하거나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후원은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두면 더 좋은 홍보가 될 것이다.

모 사회복지법인은 문화 소외 계층 아이들에게 악기를 대여하고 교육하는 오케스트라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금하는데, 아이들을 불쌍한 존재로 내세우는 것보다 아이들이 음악으로 얼마나 성장했고 행복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스기업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전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지체장애 1급 임아가 각고의 노력 끝에 리우패럴림픽 핸드사이클 선수로 된 사연을 알고 있다. 그녀를 위해 특수장비 등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는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다.

이들은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변화와 성장'으로 정확한 결과를 증명하며 모금을 진행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자극적인 사진이나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내세워 눈물로 모금을 요청하는 광고보다 모금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다면, 후원사업 본연의 의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또 장애인의 치료비 지원사업 역시 화상장애인의 화상 자국을 보여준다거나 변형된 모습을 강조해 모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보다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얘기를 나누는 모습 등의 사진을 게시해 '다르지만 행복해',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내용으로 후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을 존중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대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후원사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장애포르노그래피 - 모금홍보의 불편한 진실

[장애의 비극 부각시켜 상업적 효과를 누리는 모금단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행정부 최진하



① 생일을 맞은 영국의 한 소녀가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있다.



② 전쟁으로 피난하다 아버지와 헤어진 소녀가 홀로 길을 걷고 있다. ©Save the Children, 시리아 내전 3년 영상 '영국에서 전쟁이 난다면'

요즘 이슈가 되는 빈곤 포르노그래피, 빈곤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며 동정심을 유발해 모금을 유도하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말한다. 빈곤 포르노의 제물이 되는 개발도상국의 흑인 아동을 떠올려 보자. 모금단체는 성금을 모으기 위해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섭외해 불쌍한 연기를 시키고 흠뻑물을 먹이거나 앙상한 몸을 노출해 감정에 호소하는 광고를 제작한다.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사업일 경우, 신체적 장애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최대한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일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모금한다.

그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나 연예인들은 선한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 장애인을 알뜰모로 복속시키거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돌보는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TV나 신문 등

의 매체에 게시하고 있다. 유명인은 '봉사'와 '선행'을 베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장애인에게는 '초상권 침해'와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다. 누구도 동정받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미디어 속 장애인의 모습

요즘 세상에 너무나 많은 불행으로 인하여 동정하는 마음의 싹이 계속 잡아당겨져서 이제 불편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피터 드러커

자극적이고 비극적인 내용이 아니면 기금이 모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금단체들과 실제로 지갑을 열지 않는 기부자들. 어쩌면 우리는 자극적인 모금 홍보로 자선행사를 하면서 자기만족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장애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아픔', '불쌍함', '도움이 필요함', '불가능함'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한다. 그러한 생각 자체가 사회가 만들어 낸 편견임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는 '장애와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 자체를 바꿔야 한다.

대중매체는 그동안 장애인, 노인, 여성, 외국인 등의 이미지를 고정적으로 형성해 왔다. 장애인의 가능성과 장점을 외면한 채 불쌍한 존재로 각인시켰다. 이렇게 각인된 이미지들이 재생산되며, 더 감성적인 내용이 아니면 지갑을 열지 않는 현상을 낳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며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0년 영국의 BBC에서 화상 장애인 제임스 패트리치(James Partridge)가 뉴스 앵커로 나와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KBS에서 1급 지체 장애인인 홍서운 앵커를 발탁해 뉴스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대중매체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애는 시도를 한다면 장애인이 동정의 대상이 아닌 평범한 이웃이라는 생각을 심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장애는 감동 포르노가 아니다

"장애는 나쁘지도, 특별하지도 않아."

코미디언 겸 방송인이자 인권 운동가였던 스텔라 영의 말이다. 그녀는 불완전 고통증이라는 희소병으로 키가 1m도 되지 않았고 뼈가 약해 휠체어를 탔다. 재치 있는 말솜씨로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던 그녀는 2014년 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는 당신의 영감 거리가 아닙니다. 장애인을 감동 포르노로 취급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장애인에 대한 지나친 호의와 배려를 경계했다. 장애는 결코 비극적이지 않으며, 개인의 특징일 뿐 동정을 호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행복하게 살아가던 영국 소녀의 일상이 전쟁으로 파괴되는 모습을 담은 모금광고를 제작했다. 자극적인 묘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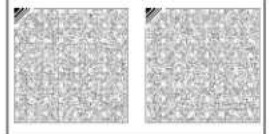
이 광고는 "지금 네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무관심으로 키워낸 미래는 희망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76호 2016년 6월 24일

회장·발행인/김정환 편집장/오창석 기자/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news@kappd.or.kr

대표전화: (02)796-4280 FAX: (02)796-4281
구독문의: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장협은 장애인 권리 운동의 선구자”

——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교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김종인 교수.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의회정치대학의 교학처장을 맡아 인재를 양성하는 등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세력화에 기여해 온 과정을 돌아보며, 그가 제시하는 21세기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들여본다.

Q. 교수님께서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그 당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A. 내가 대학에 다니던 1970년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만연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법이나 제도도 전무해 고통받는 장애인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신문사에서 활동하며 장애인 관련 취재를 통해 부당한 현실을 알리려 노력했고, 직접적인 봉사활동도 하면서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 1986년 지장협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법인 인가를 받으며 전국적인 장애인당사자조직의 체계를 갖추어 갔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켜본 지장협은 어떤 곳이었나요?

A. 1986년은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나는 고(故) 장기철 회장이 장애인당사자단체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스스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장기철 회장은 지장협의 인프라 구축과 법적 사회적인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장 회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에게 특별한 카리스마를 느꼈습니다. 척박한 복지환경에서도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신념이 반짝였습니다.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복지 발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제가 바라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들은 복지의 수혜자로서만 존재했기 때문에 조직을 이끌어가는 역량이 미흡한 지도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0년대 후반



김종인 교수.

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지장협의 시·도·시·군·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의 구심으로 당당히 서도록 지원했습니다.

Q. 지장협은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바탕으로 1990년대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1998년 교수님과 함께 의회정치대학을 개설해 장애인 정치신인을 양성했는데, 교수님께서 이를 수락하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장기철 회장과 이야기 나누던 중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당사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정작 장애인들은 학력이나 정치적 역량이 낮다. 당사자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하려면 의회정치대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지장협과 함께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장기철 회장이 학장을 하고 내가 교학처장을 맡아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장애인이 의회나 자치단체장 등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냈

습니다.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Q. 지장협이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수님은 협회 설립 초창기부터 인연을 맺고 교육 지원과 자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셨는데, 지장협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1980년대 장애계는 재활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장협이 탄생하며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복지 발

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직화와 의식화, 여론화에 박차를 가하며 1990년대 장애인복지를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장애인 권리 운동의 요체가 되는 선구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Q. 앞으로 지장협이 장애인복지 발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요?

A. 30년 동안의 지장협은 장

애인당사자주의를 통한 정치세력화 실현, 그리고 법과 제도 정비 요구나 대사회적 장애인식개선 등의 운동에 주력하는 단체였습니다. 앞으로 30년간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비즈니스 모델을 주도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선진복지국가에서 장애인 자립모델로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장애인 당사자가 브랜드화 되어서 재활 경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장협은 이미 전국에 복지관이나 자립작업장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30년간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경제사회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지장협을 기대해 봅니다.

Q.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까요?

A.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4가지 요소 중 3가지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국민소득 2만불, 국민에 의한 정치, 반 전체주의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인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만 달성하면堂堂하게 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장애인복지는 인간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투쟁이었고, 이것을 충족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더 높은 수준의 역량강화를 통해 한국경제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발전시키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1998년 의회정치대학 헌판식에 참여한 김종인 교수(맨 오른쪽).

리더스토리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영식 협회장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삶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여성의 삶의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회활동이 늘어난 점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돕는 할당제 등 여러 여성우대제도를 통해 취업이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이 사회 진출의 관문을 뚫기는 아직도 쉽지 않다. 비장애 여성에게도 어려운 사회경제 활동이 장애여성들에게는 어떠한가.

경북지역은 대체로 여성장

애인이 노동력을 쓰는 곳은 집안일에 한정돼 있다. 조금이라도 활동이 자유로운 이들은 농사를 짓는 정도이다. 사회 인식도 대도시에 비해 보수적이다. 게다가 여성장애인 또한 스스로 장애라는 굴레 안에 갇히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여성의 삶에는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 일을 통한 사회 기여,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소통 등도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직업이 단순한 돈벌이 이상인 이유도 거기에 있다. 누군가에게 직업은 사명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일을 통해 맺는 관계가 삶의 표현 방식이다.

남편이나 국가에 경제적으로

여성장애인과 일

로 의존하는 삶에는 문제가 숨어있다.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남편이 아프거나, 실직하거나 일찍 사별하게 된다면? 또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국가에서 보장하는 혜택이 줄어들다면 어쩔 것인가. 결국 남자는 여자든 경제적 자립을 포기하면 자신의 미래를 타인에게 의존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겉으로는 물질적으로 여유 있어 보여도 타인의 허락 없이는 독립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여성이 적지 않다.

장애인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열정이 넘치고, 적극적인 여성장애인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을 보면 나 또한 에너지가 생긴다. 하지만 그뿐이다. 사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 편견을 만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우리 경북지체장애인협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17개 시·도협회 중 유일하게 여성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문화, 복지, 예술, 고용, 인권 문제 등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장애인여성복지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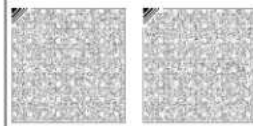
이에 따라 자립실현, 차별철폐, 교육강화, 사회문화체험 등 다원적인 변화를 추구해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립생활실현 및 여성인권 회복이라는 목적 아래 2008년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여성인권지킴이단 발대식을 하며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 왔다.

2016년에는 바리스타 교육 등 여성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 중이다. 여성장애인의 인식개선 위주의 교육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에 중점을 둔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시행착오도 겪어야 할 것이며, 많은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이 자신의 에너지를 이끌어 스스로 경제력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는 기쁨과 재미를 맛보게 하고 싶다. 여성장애인들이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스스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갖고,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주는 혜택을 누리자.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자. 당신들은 충분히 아름답고, 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계인사이드

서산시장애인복지관 김준곤 관장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노인 층에선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장애인 출현율이 나타나고 있으며, 60세 이상 장애노인의 비율도 전체 장애인구 대비 2000년 39%에서 2014년 51.6%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의 '2015년도 장애인 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62.6세로 앞서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한 2009년 60.5세보다 2.1세 높아졌다.

장애노인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 소득, 교통 등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도

함께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주로 비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노인 보다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서비스와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 그로 인해 장애노인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서비스로부터 모두 소외되어 노인 문제와 장애인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특히 장애노인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으로, 부양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족, 친구,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이 필요하나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가 부족하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가장 이용을 희망하는 시설이 장애인복지관으로

나타났지만, 장애인복지관의 장애노인 서비스 이용 여건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구의 특성 변화,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변화 등 장애인복지관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노인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적절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아동, 청년 중심으로 운영하던 복지서비스를 장애노인을 포함하는 생애 발달단계 서비스로 방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노인 복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노인의 장애인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이동수단이 부재

하고 건강 및 경제적인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복지관 셔틀버스 및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확대 운행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여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욕구조사를 통해 장애노인이 이용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 욕구가 높은 프로그램부터 장애노인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관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곳은 마을단위별로 있는 경로당일 것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편견,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편

의시설 미흡 등으로 장애노인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노인의 참여를 위해서는 누구나 이용하기 편하게 경로당의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 및 편견을 해소하여 공동체로서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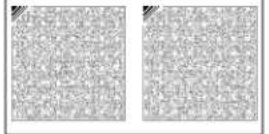
앞으로 장애노인을 위한 개별화된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장애노인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또 우리들의 작은 역할과 목소리가 나비효과가 되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노인의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기대하며

복지마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장협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길



역사와 관련된 수많은 명제 중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정의가 있다. 영국의 사학자 에드워드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 소개한 명제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다. 기존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은 주요한 사건 등을 나열하고 입증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에드워드 카는 관점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향점에 따라 역사가 기술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하면 이에 대한 기존의 역사기술 방법으로는 실증적사건, 법안 입안 의원, 몇몇 장애인 단체의 활동 등을 기술하고 그 의미를 타 법안이나 관련법과 연계하는 등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수많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의식의 변화가 있었고 시대적 흐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또 오늘날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연계되고 장애인 관련 분야의 미래지향점 등과도 연결되어 설명해야만 한다. 이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 발전사 역시 관점의 재인식을 통해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 최대 당사자 조직인 지장협의 성장과정에 대한 고찰 방안이 이러한 통합적 역사 재정립의 접근을 가능케 할 것이다.

먼저 지장협이 창립되기 이

전의 상황들을 살펴보자. 일제강점기와 전란 이후 국내 상황은 경제 안정에 매진하던 시기로 복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았다. 장애인복지 역시 몇몇 종교단체나 재활전문가 및 기관 등이 담당하던 영역이었다. 이 시기의 장애인 관련 뉴스들을 보면 장애를 비관한 가족의 장애인 살해 등의 소식들이 언론에 등장하곤 했다. 이러한 흐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던 시기는 1960년대라 할 수 있다. 60년대 국내 언론의 흔적들을 보면 장애인 어머니가 장애아를 업고 등하교를 시켜 개근을 하여 표창을 받는 등 미담이 주류가 된다. 이처럼 60년대 이후 조금씩 장애인교육 및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가시화 되면서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70년대에는 보다 본격화되어 교육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확대된다. 이후 80년대 장애인복지는 세계장애인의해와 장애인패럴림픽 등 외적요인이 작용했고 또 국내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욕구들이 확장되는 시기였다. 80년대 신문들에 등장한 장애인 관련 뉴스들을 보면 대학들의 장애인 입시거부 등이 이슈화 되어 언론에 등장했다. 입시거부에 대한 장애인당사자들의 권리 찾기 요구 등과 함께 사회이슈화를 위한 장애인 암벽등반 등의 뉴스들이 보도됐다.

이러한 장애인당사자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시기적인 장애인 관련 외적요인과 맞물리면서 사회의 인식변화 흐름이 본격화 됐다.

특히 80년대 농아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가 장애인단체로 법인이 등록되어 체계를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이 무렵 지체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경우 지방 군소단체들이 속속 등장했으나 중앙단위의 단체 결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86년 재합협회 주선으로 장애인단체들의 교류가 진행

됐고 이 자리에서 지체장애인 관련 중앙 단체 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된다. 이어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지체장애인단체들의 모임이 수회에 걸쳐 진행된다. 처음 임시 회장으로서는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단체의 대표가 맡았으나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장애인당사자주의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강했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체장애인 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던 고장기철 회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지체장애인 중앙 단체 구성을 추진하게 된다.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다 서울로 연구지를 옮기기는 하였으나 단체운영 자원이나 연계기관도 없이 출발한 고장기철 회장은 사무실 스티로폼 위에서 숙박을 하는 등 홀로 고군분투하는 수준이었다. 하지질 단장에게 있던 기철 회장은 당시 화상실, 제단 등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며 조직결성에 매진했다. 이러한 희생과 열정을 바탕으로 지장협의 기초가 마련되게 된다.

이후 1986년 12월 27일 롯데호텔에서 한국지체장애자협회가 총회를 진행하게 되고 본격적인 단체활동을 시작한다. 이어 진행된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연이은 장애인 관련 행사 진행을 통해 장애인 문제의 사회이슈화를 이끌어 냈다. 또한 정계와 사회적 분위기의 지지를 획득하면서 지장협의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전국 조직화는 무엇보다 장애인당사자 인재발굴이 가장 큰 과제였다. 이에 장애인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의 기틀을 갖추는 데 오로지 매진했다. 장애인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한 지역에서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장애인리스트를 뽑아 가정방문을 해가며 인재발굴

에 매달려야만 했다. 90년대 중반 안정화된 전국 지장협 조직이 구성되기까지에는 이처럼 발품을 팔고 땀과 물 한 모금으로 식사를 때우며 활동하던 초기 조직원들의 활동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60년대 이후부터 확산된 장애인 교육수준의 향상, 사회차별에 대한 인식, 장애인의 의식 함양, 장애인당사자의 강한 의지가 발원했던 것이 그 근간이었다.

장애인당사자조직 구성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장애인복지의 변화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게 된다. 먼저 지방에서 장애인단체들의 활동들이 활성화됐다. 이 무렵 기철 회장은 지방조직을 순회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유지 등을 만나 지역 장애인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장애인의 인권과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에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장애인단체 지원의 기초를 마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중앙단위에서만 진행되던 각종 사업들과 정보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장애인의 참여확대가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지장협은 지방 조직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강화 등을 통한 역량강화에 치중했다. 당시 열악한 환경과 직원 및 전문인력의 부재 등으로 조직의 체계가 일시에 변화되기에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당사자 인재양성은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 지장협은 전국을 돌며 직원과 리더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 정책은 수많은 장애인리더를 배출하는 효과를 낳았다.

지장협은 지역 장애인 지도자를 배출하는 요람이 됐고 더 나아가 정치세력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노력이 이후에는 장애인정치세력화와

자기결정권 신장의 근간이 되고 권익신장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지장협은 장애인당사자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정치인들의 시각을 바꾸는데도 크게 일조했다. 이처럼 지장협은 철저한 당사자주의 기반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장애인복지발전사의 변화 주체가 일부 법안이나 몇몇 단체의 활동이 아닌 장애인 민중전체의 변화와 욕구에 기반한다고 볼 때 지장협은 장애인중에 의한 대표 단체로서의 활동과 토대 구축은 물론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지장협은 1986년 설립되어 2016년 3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잡날 없다는 말처럼 수많은 고초를 견뎌왔다. 그러나 외면으로 보이는 각종 사건 사고들과 결부된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장애인당사자를 결집시키고 장애인중에 의한 복지역사 변화의 새바람을 불어 넣는 긍정적 역할을 주도해 왔다.

이처럼 지장협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관점을 달리 봄으로써 우리는 장애인당사자의 역사를 다른 시각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당사자의 결집과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어떻게 장애인복지를 바꾸고 더 나아가 한국사회를 발전시켜 왔는지를 재조명하고 평가해야 한다. 지장협의 지나는 발자취와 그간의 몸부림이야말로 장애인당사자들의 주체성과 복지의 당위성을 입증시키고자 하는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우리가 향후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 우리 장애인에게 전체를 바로 잡는데 선봉에 서고 우리의 활동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할 시점에 와 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오늘을 연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부공모방법안내 : www.kappd.or.kr

2016
KAO
The Korea General Art Festival
Of The Disabled

제29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사진부문·미술부문 공모

공모기간 : 2016.6.1(수) ~ 2016.8.1(월)

■ 사진부문 공모

- 작품주제 : 장애인
- 부문 : 일반카메라 / 휴대폰사진(스토리사진 가능)

■ 미술부문 공모

- 작품주제 : 자유
- 부문 : 서양화 / 동양화 / 서예

■ 문의 : 2289-4381(담당자 : 오창석, oh@kappd.or.kr)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O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제2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전채대상 수상작 권영석 '학교3층 복도'